

진안, 정부 버 보급종 채종단지 선정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대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18일 2019년 정부 버 보급종 신규 채종단지로 백운면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백운면 석전리 일원인 채종단지는 18농가 15ha의 규모로 연간 75톤(정곡기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버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특등 기준)에 20%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수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함께 종자 수매를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할 전망이다.

버 보급종 채종단지는 국립종자원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수하고 건전한 종자를 생산하여 전국의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국가 기반산업인 식량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지 대표인 박상일씨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종단지로 선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첫해에는 이형주, 잡수 제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채종포 운영 메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필환 소장은 "버 보급종 신규 채종단지에 선정된 만큼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종자소득 단계부터 병충해 예방과 적정 시비, 수확, 건조·조제까지 종자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15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성황'

1만 3000여 명 관광객 방문... 청춘 주제로 한 프로그램 인기

'진안고원 고로쇠 먹고, 젊음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15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고로쇠 축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약 1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진안고원 고로쇠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했다고 분석했다.

올 해 축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포스터와 전단지, 영상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

와 청춘이라는 감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청춘다방 운영, 추억의 구멍가게,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DJ와 춤을 추는 댄스파티 등 청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개막식 간소화로 관광객이 즐기는 축제로 변화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카드결제기를 도입하고 축제 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들이 축제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다소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했다.

남귀현 축제위원장은 "더욱 풍성해진 불거리와 즐길거리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다. 내년에는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축제는 끝났지만 진안 운장산 고로쇠 수액은 3월 말까지 생산된다. 고로쇠 수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안 주천면 고로쇠 작목반(063-430-8392)에 문의하면 택배 수령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9년 임금협약 체결식



장수군과 장수군공무직노조는 지난 1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인상·호봉구간 인상 등 합의안 도출

장수군과 장수군공무직노조는 지난 1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조금현 행정지원과장, 공무직노조 박창만 지부장, 간부공무원, 노조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 협약은 지난해 10월 노조의 임금요구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상경례 등 총 2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 호봉구간 인상 등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창만 지부장은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장수군 공무직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수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아로니아 과원 정비 1억 투입

진안군은 18일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과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원 정비에 지원되는 비용은 ha당 600만원으로, 아로니아를 실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와 정지작업 등을 완료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전액 지원한다.

현재 진안 지역에서는 219농가에서 48ha의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결과 확정된 44농가 16.7ha의 과원을 3월 말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원 정비 지원을 받은 경우 아로니아 및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 FTA 폐업지원 품목(체리, 포도, 블루베리) 등 각 품목의 목표를 과원 정비일로부터 3년 이내 식재하지 못하며, 위반 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역주민 외국어 교실 개강

장수군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 외국어 교실'을 장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6월까지 진행하며 7일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갖고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외국어 교실은 영어회화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과정을 무료(교재비 별도)로 운영하며 결혼 이민자들을 원어인 강사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중국어반은 6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부터 운영하며 영어회화반과 일본어반, 베트남반 등은 매주 목요일 강의가 열린다.

외국어 교실에 참여한 주민 김모씨(45·장수읍) "외국어 교실을 통해 영어 배워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현우 센터장은 "외국어 학습을 통해 주민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주민들과 만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어르신 대상 응급처치 교육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280곳

무주군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찾아가는 생명플러스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생명플러스 응급처치교육'은 심장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대응요령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위기상황 인지능력 강화와 인지기능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안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은 10월 말까지 6개 읍면 다중이용시설 280곳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18일에는 응급처치 강사가 부남면 가정마을과 상·하평마을경로당을 찾아가 응급처치단계부터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강의했다.

특히 교육대상이 어르신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대

상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 실습 강의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어르신들은 "말로만 듣고 신문에서나 보던 걸 하려니까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더니 선생님이 개인별로 실습도 하게 해주고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뭘 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보건지원과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많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며 "응급처치만 제 때, 제대로 해도 사망률은 물론 장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